

TDB 경기동향조사(전국) - 2025년 7월 조사 -

2025년 8월 5일
주식회사테이코데이터뱅크 정보통괄부
https://www.tdb.co.jp
https://www.tdb.co.jp/report/economic/#tre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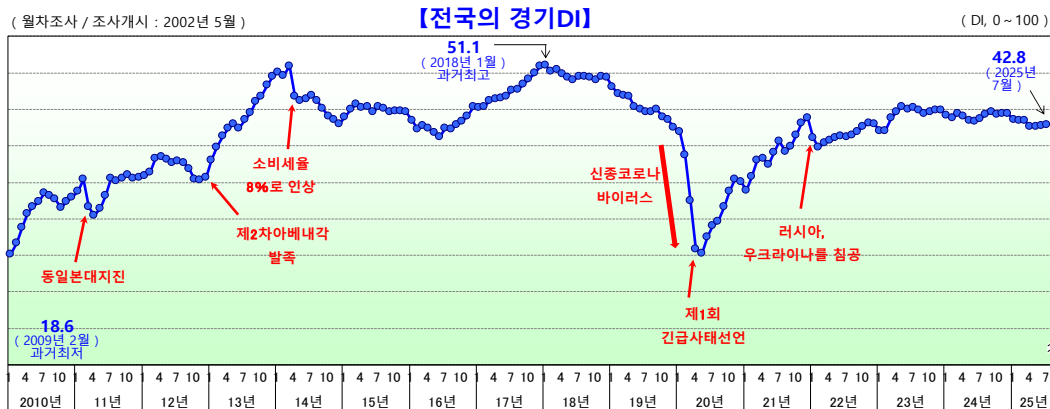
국내경기는 근소하지만 2개월 연속 개선

~ 트럼프 관세에 관한 미일(美日)교섭의 합의로 불확실성은 후퇴, 개인소비의 동향이 초점으로 ~

(조사대상 2만 6,196사, 유효회답 1만 626사, 회답율 40.6%, 조사개시 2002년 5월)

조사결과의 포인트

- 2025년 7월의 경기 DI는 전월대비 0.1포인트 증가한 42.8로, 소폭이지만 2개월 연속 개선되었다. 국내경기는 개인소비에는 여전히 약세가 남았으나, 자동차를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의 생산 회복이 견인하여 약간이지만 상향 경향이 계속되었다. 향후의 국내경기는 우려 요소를 떠안고 있으나 관세 조치의 불확실성이 후퇴하여 보합경향으로 추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 『건설』 등 4개 업계에서 개선, 『농·임·수산』 등 5개 업계에서 악화, 『서비스』는 보합이었다. 제조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경기를 상승시켰다. 규모별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개선된 한편 「소규모기업」은 악화되었다. 지역별로는 10개 지역 중 7개 지역이 개선, 관광수요 및 지역 특유의 건설수요가 플러스 요인이 되었다.
- [이번달의 토픽스] 무더위로 인하여 기업에서는 고객 방문 둔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다수 들려온 한편, 에어컨 설치 등 계절 수요를 잡은 기업도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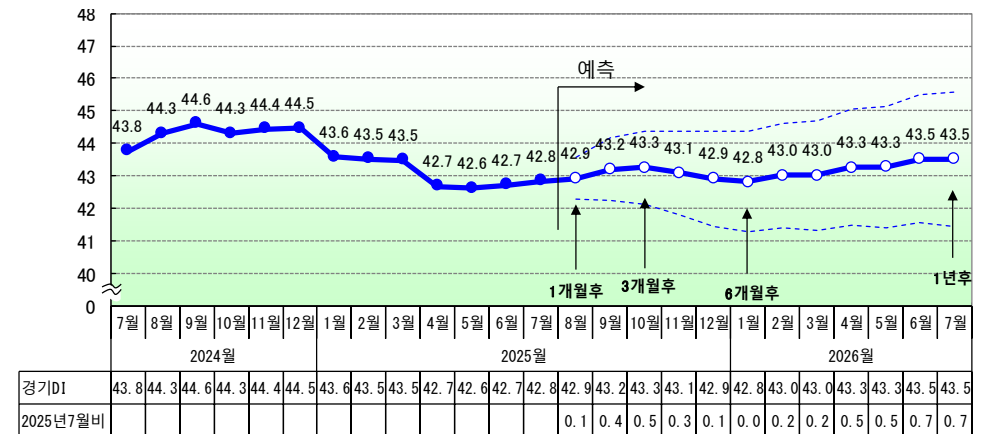
< 2025년 7월의 동향 : 소폭 개선 >

2025년 7월의 경기 DI는 전월대비 0.1포인트 증가한 42.8로, 소폭이지만 2개월 연속 개선되었다. 국내경기는 개인소비에는 여전히 약세가 남았으나, 자동차를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의 생산 회복이 견인하여 약간이지만 상향 경향이 계속되었다.

7월은 미일(美日)간 관세 교섭 합의가 발표되어 자동차 관련 생산회복이 호조였다. 무더위로 인한 여름 의류 및 공조 설비 공사의 특수 외에, 도시 부에서의 재개발 사업도 플러스였다. 공공 공사의 계속적인 발주로 건설이 상향하여 중소기업의 체감경기가 상향하였다. 한편 숙박업 등 개인서비스가 내림세인 한편 자연재해에 따른 교통망 혼란 등은 일부 지역에서 악재가 되었다.

< 향후의 전망 : 보합경향으로 추이 >

트럼프 관세에 관련된 미일 간의 합의로 인하여 불확실성이 약간 누그러졌다. 향후는 실질임금 상승 및 실수입을 둘러싼 정책대응 등에 의한 개인 소비의 동향이 초점이 될 것이다. AI 관련 설비투자 및 방일 여행객 증가는 경기를 지탱할 것이다. 한편 미국의 관세 조치는 자동차 관련 인하시기 및 수출업체로의 영향이 주목되는 한편 인력 부족 및 물가고는 계속해서 경기의 부담이 될 것이다. 국내경기는 우려요소를 떠안고 있으나 관세조치의 불확실성이 후퇴하여 보합경향으로 추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예측 DI는 ARIMA 모델과 구조방정식 모델의 결과를 Forecast Combination 수법으로 산출.
점선은 예측치의 폭(예측구간)을 나타내고 있다.